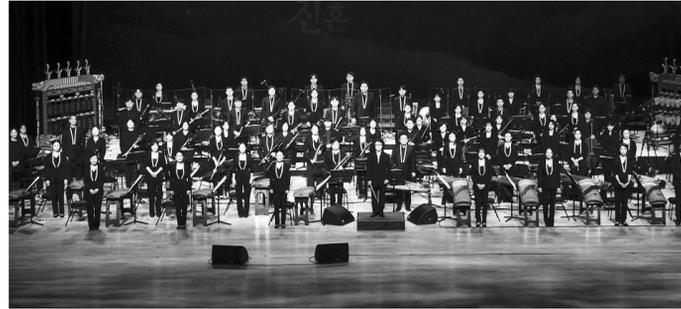




한 해 수고한 그대에게 공연 선물

시립오페라단, 클래식 시리즈
광주시향, 해외파 색소폰 협연
시립국악관현악단 '우리 소리'
송년 공연 보며 문화충전 시간

다양한 공연들로 북적했던 2023 계묘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해를 매조지는 겨울의 초입, 광주시립예술단의 송년공연을 감상하며 따뜻한 문화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공연 장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공)

◇시립오페라단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I'

일정 기간 연속해서 열리는 공연은 '동일한 테마'로 전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양일간 이채로운 컨셉, 출연진을 만나볼 수 있는 2일 2색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2023 송년 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I'를 오는 2-3일 오후 5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친다.

먼저 2일에는 오페라 명작 라 보엠의 주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스페셜 갈라 라 보엠'을 선보인다. 한국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정치음악 지휘를 맡으며 윤정남(소프라노), 신상근(테너) 등이 출연한다. 연주에 트리니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페셜 갈라 '라 보엠'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솔리스트 앙상블이 이틀 날 무대를 장식한다. 총 60인의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등이 출연해 우리 가곡을 들려줄 예정, '청산에 살리라',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한국 가곡부터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푸치니 '내가 길을 걸을 때면'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전석 2만 원.

◇광주시향, 해외파 색소포니스트 등과 협연
깊고 따뜻한 색소폰의 음색에 젖어보는 것도 좋겠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연말을 맞아 '2023 송년음악회'를 다음 달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재즈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조지 거슈윈의 '걸 크레이지 서곡'이 막을 올린다.

로베르토 모리넬리의 '뉴욕으로부터 온 네장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지휘자 김광현 등이 출연해 화제다.

미국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레너드 번스타인의 '3개의 댄스 에피소드 온 더 타운'을 연주하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도 감상할 수 있다. 이 곡을 모티브로 2021년 거장 스티븐 스피버그가 동명의 영화

를 창작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협연자 브랜든 최는 프랑스 리옹 국립음악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미국 신시내티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클래식 앨범 '색소폰 소나타'를 발매했으며 현재 한양대·동덕여대에서 겸임교수.

지휘자 김광현은 예원학교 피아노과, 서울 예고 작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지휘를 전공했다. 그동안 국립심포니, 부산·대전·대구·수원·인천 시향 등 국·공립 교향악단과 해외 실내악단을 지휘, 평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등 예매.

◇시립국악관현악단 '천년의 소리 우리의 노래'

국악 관현악의 고즈넉한 울림도 쌀쌀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

는 13-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하는 송년음악회 '천년의 소리 우리의 노래'가 바로 그것.

국악가요 '꽃분네야'부터 초등 음악교과서 수록작 '소금장수', '산도깨비' 등이 올려 퍼질 예정이다.

독도의 주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독도 아리랑', 우리 민족이 맞이한 풍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배 띄워라' 등 역사적 의미를 투영한 작품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가난한 사랑의 노래', '희망가', '아름다운 나라', '직녀에게' 등은 비극을 넘어 희망을 위시하는 곡들이다. 서울대 국악학과를 졸업한 박승희가 지휘를 맡으며 김산옥, 오정해, 정명신, 김원중 등이 출연한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할 수 없는 삶의 순간 어떻게 마주할까

보성 출신 박봉규 시인 '안산행 열차를 기다리다' 펴내

"재치 있는 언어는 사람의 기본을 유쾌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 만나면 즐겁다. 그런 삶이 되고자 한다." 보성 출신 박봉규 시인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박 시인을 만나면 즐겁다. 유쾌한 데다 가끔씩 정곡을 찌르는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시인의 자질이 풍부한 그가 어떻게 오랜 시간 "자본주의 최전선으로 일컫는 영업 (계약회사) 쪽 일"을 해왔는지 의아할 뿐이다.



그는 90년대 중반 오월문학상과 영남일보 신춘문예로 일찍이 시인이라는 '명패'를 달았다. 하지만 그는 시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동안 목수로, 기자로,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 직업을 바꿔가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유쾌하면서도 쓸쓸하게' 살았다.

박 시인이 최근 첫 시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작품집 '안산행 열차를 기다리다' (푸른사상)에는 지나온 삶의 이력과 일상에서 느낀 감성을 갈무리한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동안 시인은 자본주의 속성과 인간에 대한 나름의 성찰을 터득했다. 사실 '영업'과 '시인'은 극과 극의 지점에 자리하는 존재다. 그러나 극과 극은 상통하기 마련인데, 한편으로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말의 친연성을 지닌다.

"그늘 아래 진다 모든 그리움 저물어서/ 내 마음 단단한 빛에 걸린 고라니처럼 밤새 운다/ 바람에 젖는 갈대숲 내 울음 따라 같이 운다/(중략) 시절은 언제나 캄캄하고/ 눈먼 장님 바늘귀를 찾다 손가락을 찔리듯/ 열망은 자꾸만 내 발등을 찌는다/

나는 나를 암매장하고 싶다/ 남몰래 내 범죄에 눌러 까무러치고 미열처럼 다가오는 신세벽..."

"망명의 시절"이라는 시는 화자의 고단했던 청춘의 시간들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바람에 젖는 갈대숲"이 울음 따라 같이 울 만큼 슬픔과 상흔은 간단치 않다. 오죽하면 화자는 "나는 나를 암매장하고 싶다"고 선언했을까 싶다.

고재종 시인은 "아직도 청년투의 발하나 호기를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 호기가 오히려 삶에서나 시에서나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시집이 그간 밀쳐두었던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서 제2의 인생 고지에 치열하게 도전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발문을 쓴 조성국 시인은 "시인이란 제 말길을 열어, 세상의 물길과 숨길과 은밀히 소통하는 자이므로 나는 그의 '희망'에 가만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한편 시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 나주에 있는 '강물 위에 쓴 시' (남평읍 강변1길 50)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버스킹·인디밴드 드러머를 만나다

2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투 드럼, 원 사운드'

'화려함'과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메시지를 드럼으로 전한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황봉년)은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열린소극장 무대로 드럼 온 체인지 팀의 '투 드럼, 원 사운드'를 마련했다.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공연은 각기 다른 주법과 개성을 지닌 버스킹 드러머와 인디밴드 드러머가 만나 드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내용이다. 드럼 연주는 호신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정수, 이다훈이 들려준다. 최수빈(보컬), 유경빈(피아노), 김선별(베이스) 등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드럼, 피아노, 기타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배틀하는 이색적인 레퍼토리는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주걸론 등이 피아노로 배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 드럼 온 체인지 팀은 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드럼 버스킹을 시도하고 있는 단체다. 재즈



드러머 김정수(왼쪽), 이다훈. <광주문화재단 제공>

편곡과 K-POP커버, 퓨전 국악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세계를 구축해 왔다. 전석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